

재활간호학회지 논문 분석 - 창간호부터 2004년까지 -

임난영¹⁾ · 김정화²⁾ · 조복희³⁾ · 소희영⁴⁾ · 박송자⁵⁾ · 조남옥⁶⁾ · 유경희⁷⁾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재활이란 심신장애인이 신체적 기능을 재통합하여 사회로 복귀하기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 및 직업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도모하는 과정(WHO, 1980)이다. 재활은 불구로 인한 장애를 경감시키는데 목적을 둔 교육적 문제해결과정으로 재활대상자와 사회가 기대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로의 재통합과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성공적인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재활의 목적과 기대에 포함된 주요 특성은 불구와 장애의 감소, 독립성, 임파워먼트, 문제해결, 대상자중심, 전인적접근, 교육적과정으로 볼 수 있다(Suh, 2000). 따라서 장애예방, 재활기구개발, 사회심리적 재활간호기법,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분야의 학문적 깊이가 발전하려면 서술적조사연구, 상관성연구, 중재연구와 같은 양적연구와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적 연구를 비롯한 질적연구 등 여러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토대가 다져지고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간호학은 임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서 임상중재연구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통해서 좀더 안정적인 학문적 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재활간호 연구를 보면,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과 관련된 실무연구가 많아 간호학적 특성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무가 연계되고 통합함으로써 발전하는 응용과학으로서의 간호학문의 특성에 부합되고, 이로써 대상자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적돌봄으로 재활대상자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간호는 기능장애와 변화된 생활양식 때문에 개인이나 인구집단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에 대한 인간적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재활간호의 핵심적 기본철학은 장애가 있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재활간호사는 결함을 지닌 개인이 장애를 뛰어넘는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각 개인은 건강과 생활양식을 선택할 권리와 책임감을 지닌 독특하고 총체적인 존재임을 믿는다(ARN, 1988). 재활과정에서는 인간의 잠재력과 팀접근 및 장애인과 가족중심에 대한 철학적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재활의 접근방향이 결정된다. 재활간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간호개념들은 대상자중심, 사회 재적응, 독립성, 기능적 능력의 독립, 팀접근, 삶의 질, 예방과 안녕, 변화과정, 적응, 대상자와 가족 교육 등이다. 그러므로 재활간호사는 이들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개념을 통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 숙련된 기술과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간호연구도 임상과 지역사회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재연구를 활성화시켜 재활간호 연구자와 실무자가 연계하는 산학협동 연구를 많이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재활간호, 논문분석

- 1)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3)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4)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5) 서울보건대학 간호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sonya@sh.ac.kr)
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7)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투고일: 2005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20일

재활간호의 원리는 나이팅게일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Nightingale(1859)은 'Notes on Nursing'에서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스스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간호중재이다'라고 기록하였다. 그 이후 19세기경 소아마비가 창궐하여 불구아동이 증가하면서 재활의학이 전문분야로 각광받게 되었으며, 1차와 2차 세계대전때 부상한 군인들이 급증하면서 재활의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출현과 산업발달은 사고의 증가와 함께 영구적 손상을 초래하였으며, 평균수명의 연장과의 의학 발달도 재활요구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로의 전환은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져오면서 오락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신체적 손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재활간호는 손상을 가진 대상으로 하여금 불구나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 임상 환경에서 일어나므로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간호실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재활간호학회는 1997년 재활간호연구회 모임을 시작으로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8년부터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998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1년에 두권씩 2004년까지 총 13권을 발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활간호학회지 창간호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재활간호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여 재활간호영역의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중장기적으로 재활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여 재활병원, 가정, 복지재활센터, 장기요양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재활간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과학성을 갖춘 재활전문간호사 제도로 발전시켜 재활간호 영역을 한단계 상승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고자 하며, 향후 재활간호 영역에서의 연구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연구 분석은 간호 이론과 연구 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들은 연구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여 이를 임상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dfern, 1997).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재활간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것이다.

- 연구 대상자의 특성 : 연구유형, 생의 주기, 성별, 질병유무를 조사한다.
- 논문 관련 특성 : 간호영역, 연구유형, 동의여부, 이론수준, 연구장소, 주 연구자의 지위,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실험연구에서의 간호중재, 지식발달방법을 조사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및 진행 절차

본 연구는 1998년 창간호부터 2004년까지 재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 134편의 내용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논문분석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이 논문분석에 관한 선행문헌을 고찰하고, 재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논문의 방향을 결정하였고, 분석할 항목과 유형을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

도구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생의 주기, 성별, 대상자 질병, 윤리적으로, 연구영역, 연구유형, 이론의 4수준, 연구장소, 주 연구자의 지위,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실험연구에서의 간호중재방법, 지식발달방법이었다. 도구내용에 따라 각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여 항목별로 내용을 기록한 후 빈도를 확인하여 범주를 결정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재활간호학회지에 수록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8.0을 사용하여 연구도구의 분석틀에 의하여 내용별 범주에 따라 빈도, 백분율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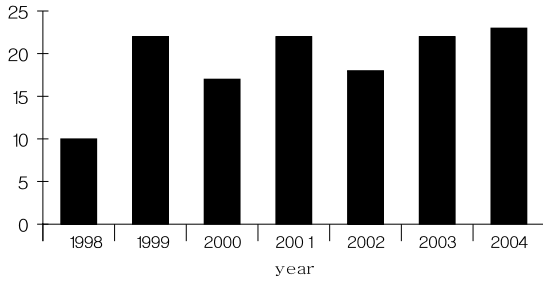
연구논문의 발표연도

지난 7년간(1998년~2004년) 재활간호학회지에 발표된 간호학 논문은 총 134편이었다. 창간호가 발간된 1998년은 한번 발간되어 7.5%(10편)이었고, 그 다음해인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해 12.7%(17편)에서 17.2%(23편)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Table 1, Figure 1>.

<Table 1> Number of researches by the year (n=134)

Year	Mean(%)
1998	10(7.5)
1999	22(16.4)
2000	17(12.7)
2001	22(16.4)
2002	18(13.4)
2003	22(16.4)
2004	23(17.2)

<Figure 1> Number of researches by the year



<Figure 1> Number of researches by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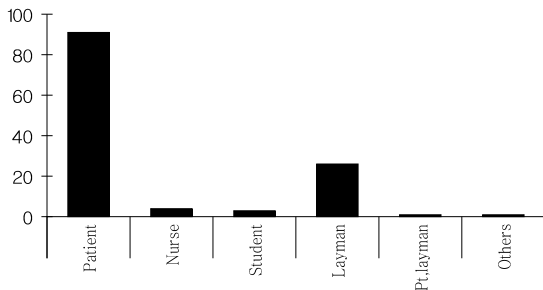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유형

연구대상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7.7%(91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환자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19.4%(26편)이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는 간호사와 의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1편 포함되었고, 학생은 간호학과 학생과 타 전공학생이 포함되었다<Table 2, Figure 2>.

<Table 2> Type of subjects (n=134)

Category	Mean(%)
Patient	91(67.9)
Clinical nurse	4(3.0)
Students	3(2.2)
Ordinary person	26(19.4)
Patient and Ordinary person	1(0.7)
Others	1(0.7)

<Figure 2> Type of subjects



<Figure 2> Type of subjects

대상자의 생의 주기별 유형

연구대상자를 생의 주기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생까지를 아동기, 12세에서 20세까지는 청소년기, 성인은 20~64세, 노인은 65세 이상이거나 논문에서 노인으로 표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논문 중 78.4%(105편)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다음은 노인 13.4%(18편)이었으며, 청소년기는 2편, 학령기이하 아동은 1편이었다<Table 3>.

<Table 3> Life cycle of subjects (n=134)

Category	Mean(%)
Child	1(0.7)
Adolescence	2(1.5)
Adult	105(78.4)
Elderly	18(13.4)

대상자의 성별

남녀모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75.4%(101편)이었고, 여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4.2%(19편), 남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3.0%(4편)으로 대부분 성별 구분없이 질병중심으로 연구하였다<Table 4>.

<Table 4> Gender of subjects (n=134)

Category	Mean(%)
Male	4(3.0)
Female	19(14.2)
Male and Female	101(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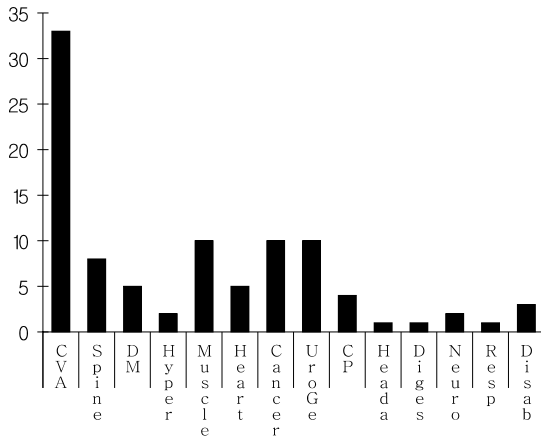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질병

질병은 뇌졸중이 가장 많아 24.6%(33편)이었고, 그 다음은 근골격계질환, 암환자, 비노생식기계질환이 7.5%(10편)으로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척수손상은 6.0%(8편)이었다. 근골격계질환은 요통과 같은 통증, 퇴행성관절염, 고관절치환술 등이 포함되었고, 암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포함되었으며, 비노생식기계 환자는 혈액투석을 시행하

<Table 5> Type of disease of subjects (n=134)

Category	Mean(%)
Cerebrovascular Accident	33(24.6)
Spinal cord injury	8(6.0)
Diabetes Mellitus	5(3.7)
Hypertension	2(1.5)
Musculoskeletal disease	10(7.5)
Cardiovascular disease	5(3.7)
Cancer	10(7.5)
Urogenital disease	10(7.5)
Cerebral Palsy	4(3.0)
Headache	1(0.7)
Digestive disorder	1(0.7)
Neurologic disorder	2(1.5)
Respiratory disorder	1(0.7)
The Disabled	3(2.2)

<Figure 5> Type of disease of subjects



<Figure 3> Type of disease of subjects

는 만성신부전 환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부인과 환자를 포함시켰다. 소화기계는 간이식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고, 신경계는 치매환자가 포함되었으며, 호흡기계 질환은 진폐증 환자이었고, 장애인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었다<Table 5, 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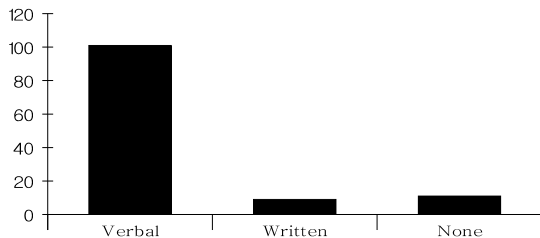
자료수집시 윤리적 고려

자료를 수집할 때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같은 윤리적고려 측면을 보면, 동의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이 대부분으로 75.4%(101편)이었고, 서면동이는 6.7%(9편), 동의에 대한 기록이 없는 논문은 8.2%(11편)이었다<Table 6, Figure 4>.

<Table 6> Ethical consideration in data collection(n=134)

Category	Mean(%)
Verbal consent	101(75.4)
Written consent	9(6.7)
None	11(8.2)

<Figure 6> Ethical consideration in data collection



<Figure 4> Ethical consideration in data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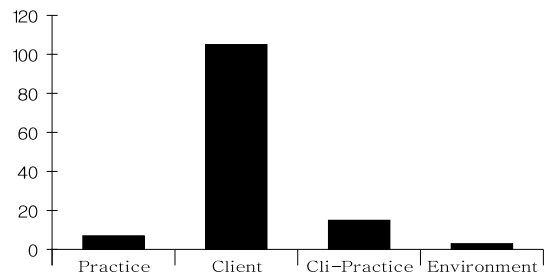
연구 영역

대상논문을 간호의 4영역으로 분류하여보면, 간호대상자 영역이 78.4%(105편)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와 간호사 영역은 11.2%(15편), 간호실무 5.2%(7편), 환경 2.2%(3편)으로 나타났다<Table 7, Figure 5>.

<Table 7> Domain of research (n=134)

Category	Mean(%)
Nursing practice	7(5.2)
Client	105(78.4)
Client-Nurse	15(11.2)
Environment	3(2.2)

<Figure 7> Domain of research



<Figure 5> Domain of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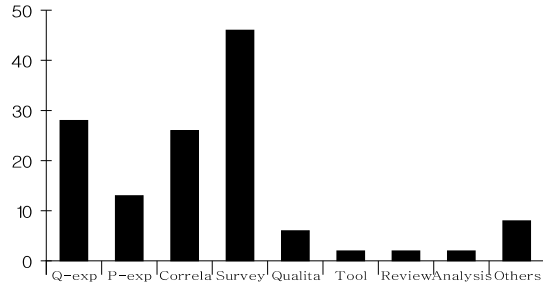
연구 유형

게재된 논문의 34.4%(46편)가 조사연구이었고, 다음이 유사 실험연구로 20.9%(28편)이었다. 상관성연구는 19.4%(26편), 원시실험연구는 9.7%(13편)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4.5%(6편)이었고, 도구개발, 종설, 개념분석은 각각 1.5%(2편)이었다. 기타는 사례연구 2편과 문헌고찰, 장애인 시설의 환자 현황 등 재활관련기관 근무자들의 보고서이었다<Table 8, Figure 6>.

<Table 8> Type of research design (n=134)

Category	Mean(%)
Quasi-experimental design	28(20.9)
Preexperimental design	13(9.7)
Correlation study	26(19.4)
Survey	46(34.3)
Qualitative research	6(4.5)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2(1.5)
Literature review	2(1.5)
Concept and Article analysis	2(1.5)
Others	8(6.0)

<Figure 8> Type of Research design



<Figure 6> Type of research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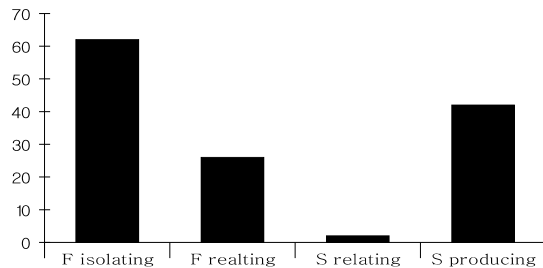
이론의 수준별 유형

연구유형을 Dickoff and James의 간호이론의 분류로 구분하여 보면, 조사연구를 포함하는 요인분리이론이 46.3%(62편)로 가장 많았고, 유사실험연구, 원시실험연구 등 상황생성이론 31.3%(42편), 요인관련이론은 19.4%(26편), 상황관련이론은 1.5%(2편)으로 나타났다<Table 9, Figure 7>.

<Table 9> Type of theory development (n=134)

Category	Mean(%)
Factor isolating theory	62(46.3)
Factor relating theory	26(19.4)
Situation relating theory	2(1.5)
Situation producing theory	42(31.3)

<Figure 9> Type of theory development



<Figure 7> Type of theory development

자료수집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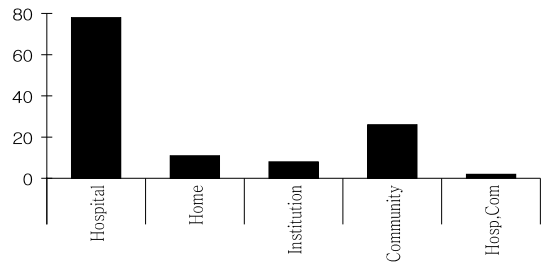
자료수집은 대부분 병원(58.2%)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는 건강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정, 보건소나 학교, 산업체 의무실, 스포츠센터, 교회 등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19.4%로 나타났다. 양로원과 복지관은 유료, 무료와 관계없이

시설로 분류하여 6.0%,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모두 자료수집을 한 경우는 1.5%로 나타났다<Table 10, Figure 8>.

<Table 10> Place of data collection (n=134)

Category	Mean(%)
Clinical setting	78(58.2)
Home	11(8.2)
Institution	8(6.0)
Community	26(19.4)
Hospital and Community	2(1.5)

<Figure 10> Place of data collection



<Figure 8> Place of data collection

주 연구자의 지위

주 연구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가 67.2%(90편)로 가장 많았고,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18.7%(25편), 대학원생 11.2%(15편), 의사 1.5%(2편)이었고, 기타는 시의원의 보건복지현황에 대한 현황보고서 1편이 포함되어 있다<Table 11>.

<Table 11> Position of chief researcher(First author) (n=134)

Category	Mean(%)
Professional nursing educator	90(67.2)
Clinical nurse	25(18.7)
Graduate students	15(11.2)
Medical Doctor	2(1.5)
Other department	2(1.5)

연구도구의 측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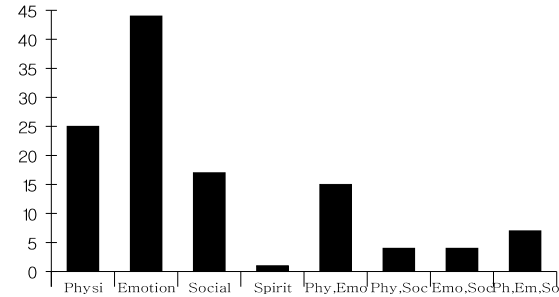
재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도구를 보면, 심리적 내용을 측정하는 연구가 가장 많아 32.8%(44편)이었고, 이 심리적 측정에는 성적관심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음은 신체적 측정으로 18.7%(25편)이었고, 사회적 측정은 12.7%(17편)로 나타났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내용을 함께 측정한 논문도 5.2%(7편) 있었으며, 영적 측정은 0.7%(1편)이었고, 문화적 내

용을 측정하는 논문은 없어서 분류에서 제외시켰다<Table 12, Figure 9>. 신체적 측정은 일상생활동작, 통증, 건강행위, 건강상태, 건강이행정도, 영양상태 등을 포함시켰다. 심리적 측정은 스트레스, 대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 불안, 정서, 자기효능, 자가간호역량, 적응, 신체상, 희망, 무력감을 포함시켰으며, 사회적 측정은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가족기능, 삶의 질, 만족도, 가족적응, 가족부담감, 가정간호 이용의사, 재활간호서비스 교육요구도 등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Table 12> Measurement tool of research (n=134)

Category	Mean(%)
Physical measurement	25(18.7)
Emotional measurement	44(32.8)
Social measurement	17(12.7)
Spiritual measurement	1(0.7)
Physical · Emotional measurement	15(11.2)
Physical · Social measurement	4(3.0)
Emotional · Social measurement	4(3.0)
Physical · Emotional · Social tool	7(5.2)

<Figure 12> Measurement tool of research



<Figure 9> Measurement tool of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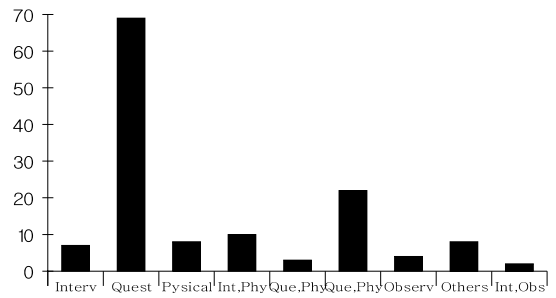
자료수집방법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질문지가 50.7%(68편)로 가장 많았고, 생리적인 측정을 하면서 질문지를 이용하

<Table 13> Method of data collection (n=134)

Category	Mean(%)
Interview	7(5.2)
Questionnaire	68(50.7)
Physical measurement	8(6.0)
Interview and Questionnaire	10(7.5)
Interview and Physical measurement	3(2.2)
Questionnaire and Physical measurement	22(16.4)
Observation	4(3.0)
Interview and Observation	2(1.5)
Others	8(6.0)

<Figure 13> Method of data collection



<Figure 10> Method of data collection

는 경우는 16.4%(22편)로 나타났다. 면담과 질문지 이용 7.5%(10편), 생리적 측정 6.0%(8편)인 분포를 보였다. 면담을 하거나, 면담과 동시에 질문지조사를 하거나, 생리적 측정, 관찰을 하는 경우는 총 16.4%(22편)으로 나타났다. 질문지로 자료수집을 하면서 생리적측정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는 74.6%로 나타났다<Table 13, Figur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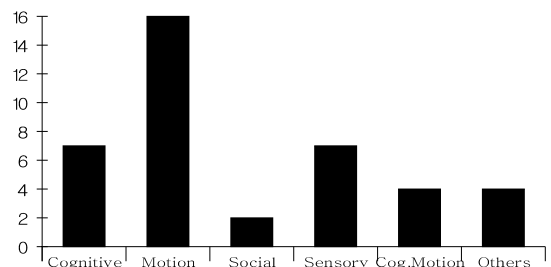
실험연구에서의 간호중재

인지적 중재는 주로 환자 교육이었으며 17.1%이었고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교재를 사용하는 논문도 있었다. 운동 중재는 39.0%로 신체생리적 중재를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중재는

<Table 14> Nursing intervention in experimental study (n=41)

Category	Mean(%)
Cognitive intervention	7(17.1)
Movement intervention	16(39.0)
Social intervention	2(4.9)
Sensory intervention	7(17.1)
Cognitive · Movement Intervention	5(9.8)
Others	4(12.2)

<Figure 14> Nursing Intervention in experimental study



<Figure 11> Nursing Intervention in experimental study

4.9%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었고, 감각중재는 17.1%(7편)이었고, 기타 치매예방교육과 같이 인지, 운동, 사회, 감각 중재를 모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논문이 있었으며, 한약의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도 있었다<Table 14, Figur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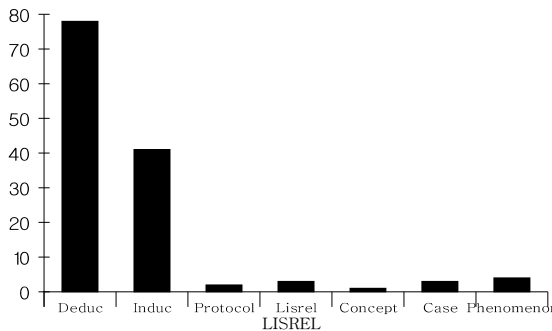
지식발달방법에 따른 분류

대상논문을 지식발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연역적분석이 가장 많은 58.2%(78편)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경험적 연구로 30.6%(41편)이었다. 현상학적 분류는 3.0%(4편), 사례분석과 처방적모델구축은 각각 2.2%(3편), 실무 프로토콜 개발은 1.5%(2편), 개념개발 0.7%(1편)이었다<Table 15, Figure 12>.

<Table 15> Classification by knowledge development (n=134)

Category	Mean(%)
Deductive method (Survey)	78(58.2)
Inductive method (Experiment)	41(30.6)
Practice protocol development	2(1.5)
LISREL	3(2.2)
Concept development	1(0.7)
Case analysis	3(2.2)
Phenomenological analysis	4(3.0)

<Figure 15> Classification by knowledge development



<Figure 12> Classification by knowledge development

논 의

재활간호학회지는 1998년에 창간호가 발간되고, 1999년부터는 한해 평균 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근 만성질환의 증가로 재활간호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연구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재활은 대상자와 가족, 재활팀이 상호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재활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대상자, 가족, 사회, 재활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영역을 확대하고 의료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실무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

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재활간호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연구를 통해 간호의 전문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론과 실무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심영역별 탐구성, 재활관련 국내 및 해외학회 참여기회 증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연구비 논문편수 증가 등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대상자를 보면 거의 대부분 성인 78.4%이었고, 노인은 13.4%로 나타났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편(1.5%), 학령기이하는 1편(0.7%)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에 선천성 유전성 질병이나 손상으로 장애가 되거나 장기간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논문이 적은 것은 이들 대부분이 가정이나 시설 내 있어서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의사소통과 같은 문제점, 특수교육 등으로 간호중재나 설문조사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동 재활에 대한 세미나 개최, 특수학교 보건교사 초청강연, 재활원과 특수학교 방문 등을 통하여 아동환자들에 대한 재활에 관심을 갖고 의료복지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노인연구는 시대적추세와 접근의 용이성으로 점차 증가되리라 본다.

대상자들의 질병분포를 보면 뇌졸중이 가장 많았는데, 뇌졸중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예방적 측면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중재결과를 측정하는 실험연구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환자와 가족대상의 교육 또는 가정간호사나 방문보건센터의 간호사 대상 교육과 효과 측정 등 여러 각도에서 주제선정과 중재연구를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전통적 한방간호중재를 적용하는 연구도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질병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며,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문도 3편 발표되었다.

자료를 수집할 때 대부분 구두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있었다. 논문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는 6.7%에 불과하였고, 동의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연구도 8.2%나 되었다. 또한 동의를 받았다고 기록한 논문도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논문작성에 필요한 윤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낮고, 동의서작성의 중요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최근 과학계에서 생명존중과 윤리적 측면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나 문화와 다르지만 국제화시대와 인간존중에 대한 우리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영역에서는 간호실무와 환경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앞으로 실무프로토콜 개발과 재활시설 등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간호사가 운영하는 너

싱홈이 개설되고 있어서 너싱홈이나 재활원, 양로원의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는 재활간호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유형에서 실험연구가 30.6%로 나타난 것은 연구자들의 간호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상학적, 근거이론적 분석 등 질적연구, 연구도구 개발, 합의구축에 의한 실무프로토콜 개발, 개념분석에 대한 연구가 적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자료수집은 병원, 지역사회, 가정, 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로원, 복지관과 같은 시설에서의 자료수집은 6.0%로 낮았는데, 이는 주로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재활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 연구자는 대부분 교수이었고, 간호사는 18.7%, 대학원생은 11.2%로 임상현장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교수와 간호사 등 재활분야 실무자와의 협동연구,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대학과 임상과 지역사회현장과의 연계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들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재활간호학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재활대상자들은 지역사회, 재활병원, 시설에 기거하므로 이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연구를 독려하여 실무와 이론체계를 통합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재활병원과 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이나 의료복지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도구의 측정내용은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두가지나 세가지 특성을 함께 측정하는 논문도 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방법을 보면 과반수가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생리적측정이나 면담을 하면서 질문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74.6%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재 연구를 하면서 생리적측정, 면담,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을 한다면 좀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로는 운동중재가 가장 많았고, 교육과 같은 인지적중재, 치매노인 교육시 감각중재를 이용한 경우, 사회적 중재, 두세가지 이상의 중재방법을 포함하여 효과를 측정한 논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보건건강분야에서 재활간호는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전문적인 실무영역으로 재활간호사는 전인간호의 개념에 입각하여 환자를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해하고 돌보아주며, 삶의 의지와 독립심을 심어주고, 환자와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의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재활간호사의 역할은 직접간호 제공 및 기술적전문가, 정서적간호와 운동 중재 및 지지자, 건강교육 및 상담자, 조정자 및 옹호자, 팀협력자, 평가자, 사례관리자, 연구자 등으로 이중 연구자의 역할은 재활간호의 필요성과 이론적체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실무를

설정하는데 뿐만 아니라 재활관련 타 분야와의 연계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임상, 지역사회, 대학 등 각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활동이 요구된다.

그동안 시도된 재활전문간호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재활전문간호사 교육과정안 개발연구와 재활전문간호사 실무 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가 있었다. 재활간호 실무내용으로는 피부영역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안전영역, 배설영역, 정서영역, 호흡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재활간호학회에서는 2003년부터 재활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및 제도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피부재활, 언어재활, 퇴행성뇌질환과 인지재활에 대한 분야별 업무영역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간호학문의 특성상 연구가 실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재 연구결과를 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점은 본 학회의 매우 큰 강점이라고 사료되며, 이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재활간호 논문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안의 수정보완에 대한 연구와 함께 특히 재활대상자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 영역별 실무측면에서의 산학연계 연구가 많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재활간호학회지는 KoreaMed에 등재되었으며, 앞으로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활간호에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도 많이 진행 중이어서 연구결과의 적용과 확산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재활간호실무자나 연구자들이 인식을 높여서 다학제간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적용과 확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활간호학회지 창간호부터 2004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논문 관련 특성을 분석하여 재활간호에 대한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여 재활간호영역의 학문적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도구는 선행문헌과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들이 작성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연구대상자, 생의 주기, 성별, 대상자 질병, 윤리적고려, 연구영역, 연구유형, 이론수준, 연구장소, 주연구자의 지위, 측정도구, 자료수집방법, 실험연구에서의 간호중재방법, 지식발달방법 등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활간호 논문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매해 17편에서 23편이 발표되었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7.7%이었다. 대상자는 20세~64세의 성인이 78.4%, 65세 이상 노인은 13.4%이었고, 남편모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75.4%이었다. 대상자의 질병은 뇌졸중이 가장 많아 24.6%이었고, 그 다음은 근골격계질환, 암환자, 비노생식기계질환이 각각 7.5%이었으며, 척수손상은 6.0%로 나타났다. 자료를 수집할 때 구두동의는 75.4%, 서면동의는 6.7%, 동의에 대한 기록이 없는 논문은 8.2%이었다. 연구 영역에서 대상자영역이 78.4%, 간호실무 5.2%, 환경 2.2%로 나타났다. 조사연구 34.4%, 유사실험연구 20.9%, 질적연구는 4.5% 분포를 나타냈으며, 자료수집은 대부분 병원(58.2%)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사회는 19.4%이었다. 주 연구자는 교수 67.2%, 임상간호사 18.7%이었고, 심리적 내용을 측정된 논문은 32.8%, 신체적 측정을 측정된 경우는 18.7%로 나타났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 50.7%, 생리적 측정 6.0%, 질문지로 자료수집을 하면서 생리적측정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는 74.6%로 나타났다. 실험연구에서 교육 등 인지적 중재는 17.1%이었고, 운동 중재는 39.0%이었다. 지식발달방법으로 분류하면, 연역적분석 58.2%, 경험적 연구 30.6%, 현상학적 분류 3.0%, 사례분석과 처방적 모델 구축은 각각 2.2%, 실무 프로토콜 개발은 1.5%로 나타났다.

즉 만성퇴행성질환 및 사고의 증가로 재활간호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대학, 임상과 지역사회가 상호연계된 중재연구의 활성화와 지원이 필요하며, 간호중재방법의 다양화, 재활 연구를 기초로 재활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활간호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연구자료를 수집할 때 구두동의보다는 서면동의를 받

고 논문에 기록하도록 한다.

셋째, 아동기의 재활, 재활대상자와 현장을 평가하는 측정도구개발, 질적연구, 재활환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생리적측정, 면담, 관찰을 통한 자료수집을 권장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재활병원, 시설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들의 연구를 권장한다.

References

- Park, K. S., Choi, E. H., Ryoo, E. N., Hwang, Y. Y., Chung, H. K., Ahn, Y. H., Paik, H. J., Lim, N. Y., Lee, E. O. (2004). An Analysis on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Rheumatology Health. *J of Rheumatology Health*, 11(1), 18-30.
- Suh, M, J., Kang, H. S., Lim, N. Y., Oh, S. Y. Kwon, H. J. (2000). Theory and Practice of Rehabili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Han, K. S., Lim, N. Y., Song, K. A., Hong, Y. H., Kim, K. H., Cho, N. O. (2003). The Analysis of Trends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CAT) in Nursing Research in Korea. *J Korean Acad Funda Nurs*, 10(3), 392-398.
-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Nurses (1998). Professional Rehabilitation Nursing, A.R.N.
- Nightingale Florence (1859). *Notes on Nursing and Notes on Hospital*. The classics of Medicine Library, Special Edition 1982.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Geneva : Author.
- Redfern, S. (1997). Review article in th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J. of clini. Nursing*, 6, 251-252.

The Analysis on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Lim, Nan-Young¹⁾ · Kim, Jeong-Hwa²⁾ · Cho, Bok-Hee³⁾ · So, Hee-young⁴⁾
Park, Song-Ja⁵⁾ · Cho, Nam-Ok⁶⁾ · Yoo, Kyung-Hee⁷⁾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4)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5)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ul Health College

6)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7)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and to suggest further perspective for rehabilitation nursing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ontents of 134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from its beginning year 1998 to 2004. **Results:** The majority of subjects were adult patients. The type of disease were Cerebrovascular Accident, Neuromuscular disease, Cancer patients, Urogenital disease such as Chronic Renal Failure, Spinal cord injury. Domain of research almost was client, type of research were survey(34.3%), quasi experimental study(20.9%), correlation study(19.4%). Nursing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study was exercise(39.0%), education(17.1%). Place of data collection was hospital (58.2%), position of researcher was professor(67.2%), method of data collection was questionnaire(50.7%). **Conclusion:** There has been a lack of written consent, child rehabilitation,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qualitative research. More studies about rehabilitation nursing are needed to extend the role and fields for professional nursing.

Key words : Rehabilitation Nursing, Research analysi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Song-Ja

Department of Nursing, Seoul Health College

Yangji-Dong, Soojung-Ku, Sungnam-City, Kyunggi-Do 461-713, Korea

Tel: +82-31-740-7185 Fax: +82-31-740-7185 E-mail: sonya@sh.ac.kr